



만복이네 떡집2,3

## 장군이네 떡집 소원 떡집

김리리 글 · 이승현 그림 | 각권 84쪽 | 148\*215 | 9,500원

출간일: 2020년 4월 29일 | 시리즈: 난 책읽기가 좋아

ISBN 2권 ISBN 978-89-491-6204-1 74800

3권 ISBN 978-89-491-6205-8 74800 978-89-491-5986-7(세트)

도서명:각양장 제조자명:주비룡소 제조국명:대한민국 사용연령:초등학교 저학년 이상

## 20만 부 판매! 『만복이네 떡집』 10년 만의 후속작 2, 3권 동시 출간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과 드디어 밝혀지는 신비한 떡집의 비밀!

### ● 이유 있는 초등 베스트셀러!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 완간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수록 도서로, 2010년 출간 이후 누적 20만 부가 판매된 『만복이네 떡집』의 후속작 『장군이네 떡집』과 『소원 떡집』이 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만복이네 떡집』은 마음과는 달리 입만 열면 나쁜 말과 행동이 튀어나와 욕쟁이, 심술쟁이로 불리던 만복이가 신비한 떡집을 만나 겪는 달콤한 변화를 그린 동화다. 전래동화를 읽는 듯한 쫄깃한 글맛에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감각적인 이야기로 저학년 문학의 표본이 될 만한 작품으로 평가 받으며 어린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원래 단행본으로 집필되었지만, 이야기의 결말에 등장한 ‘장군이네 떡집’으로 인해 후속권을 써 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꾸준히 이어졌다. 10년 만에 동시 출간된 후속작 두 권은 독자들의 열렬한 응원에 대한 작가의 응답이기도 하다.

화가 이승현이 『만복이네 떡집』에 이어 두 권의 삽화를 맡았다. 구수한 선과 색감으로 개성 강한 판타지 분위기를 자아내며 글과 찰떡같은 하모니를 만들어 낸다.

### ● 자기 긍정, 자존감 회복, 치유. 세 권으로 완성된 탄탄한 세계관과 메시지

『만복이네 떡집』이 표현이 거칠고 부정적이던 만복이가 신비한 떡집을 만나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렸다면, 『장군이네 떡집』은 텅 빈 복주머니를 타고 태어나 잘하는 것도 없고 잘되는 일도 없어서 자존감이 낮던 장군이네 떡집을 만나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찬 아이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 『소원 떡집』은 볼품없이 태어나 사람이 되기를 꿈꾸던 꼬랑쥐가 아이들에게 소원 떡을 나눠 주는 배달원

이 되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여정을 보여 준다. 이 세 권의 이야기 끝에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받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따라서 따로 읽어도 한 작품을 온전히 즐길 수 있지만, 세 권을 순서대로 읽으면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고 ‘자기 긍정’, ‘자존감 회복’, ‘치유’로 완성되는 작품의 세계관을 깊이 느낄 수 있다.

### ● 『장군이네 떡집』-복 없는 장군에게 행복을 붙여넣은 신비한 떡집 이야기

**팔떡을 먹으면 집중력이 팍팍 높아지고,**

**용떡을 먹으면 용기가 용솟음친다고?**

장군이는 허리에 텅 빈 복주머니를 차고 태어났다. 삼신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복 하나씩은 넣어 주는 데, 장군이가 태어날 때 하필 복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장군이는 공부 잘하는 복, 잘 먹고 잘 싸는 복, 운동 잘하는 복 등등 하나는 가지고 태어났어야 할 복이 하나도 없다. 뭐든 뜻대로 잘되는 일이 없어 부정적인 데다 자존감이 낮던 장군이는 어느 날 이상한 떡집을 발견한다. 묘한 기운에 이끌려 들어갔지만, 역시나 운 없게도 떡 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다. 그런데 작은 바구니에 떡 하나가 남아 있지 뭔가? 장군이는 속는 셈 치고 기분이 솔솔 좋아지는 진달래떡을 덩석 집어 든다.

장군이가 내야 할 떡값은 행복한 웃음이다. 스스로 복이 없다고 생각해 온 장군이가 행복한 웃음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까? 작가는 용기가 용솟음치는 ‘용떡’, 집중력이 팍팍 높아지는 ‘팔떡’ 등 기발하고 재미난 떡을 통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해 가는 장군이의 변화를 맛깔나는 웃음과 멋진 판타지로 엮어 낸다.

### ● 『소원 떡집』-꼬랑쥐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 신비한 떡집의 비밀

**소원 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떡을 배달해 주면**

**사람이 되게 해 준다고?**

유달리 작은 몸집과 앞니를 가지고 태어난 꼬랑쥐는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고 언제나 혼자다. 귀담게 살 수 없을 바에야 사람이 되어 자유롭게 살기를 꿈꾸던 꼬랑쥐는 사람 손톱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먼 조상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들 손톱을 찾아 먹으며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랑쥐는 이상한 떡집을 발견한다. 가게 앞 팻말에는 아이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소원 떡’을 배달해 주면 사람이 되게 해 준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받을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는 적혀 있지 않다. 꼬랑쥐는 소원 떡이 누구에게 필요할지 아이들 손톱 맛을 떠올려 보기 시작한다.

입만 열면 욕을 하는 만복이 손톱은 매운맛, 복 없는 장군이 손톱맛은 뽕은맛, 몸이 약한 은지 손톱은 씹을 것도 없이 부서져 버렸다. 꼬랑쥐는 ‘기운이 쑥쑥 나는 쑥머무리’를 은지에게 배달해 주기로 한다. 『만복이네 떡집』과 『장군이네 떡집』에서는 두 아이가 떡집을 찾는 주체로 등장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냈다면, 『소원 떡집』에서는 꼬랑쥐가 아이들에게 떡을 배달해 주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아이들을 위한 ‘떡집’을 차린 삼신할머니의 마음과 꼬랑쥐의 간절한 소원이 맞닿으며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를 귀결하는 작가의 따듯한 메시지가 느껴진다.

여러분도 소원이 있나요? 그럼 간절히 소원을 빌어 보세요. 오늘 밤 '소원 떡'을 입에 물고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제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릴게요. -작가의 말 중에서

## ● 작가 소개

**글 김리리** 중앙대학교에서 아동복지학을 공부하고, 공주교대 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전공했다. 동화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 『그 애가 나를 보고 웃다』, 『내 이름은 개』, 『우리는 닭살 커플』, 『쥐똥 선물』, 『화장실에 사는 두꺼비』, 『빵이오 빵』, 『감정 선물 세트』, 『마법의 빨간 부적』, 「이슬비 이야기」 시리즈와 「고재미 이야기」 시리즈, 청소년 소설 『어떤 고백』 등이 있다.

**그림 이승현**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지은 책으로 용산참사 이야기 『과란집』이 있으며, 그림책 『씨름』으로 한국어린이도서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그린 책으로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놀고먹는군과 공부도깨비』, 『나의 달타냥』, 『별난 양반 이선달 표류기 1, 2』 등이 있다.

편집부 장은혜 02)515-2000 (내선 315) jeh@bir.co.kr  
편집장 박지은 02)515-2000(내선번호 317) allball7@bir.co.kr



[KC 인증 정보]

1. 13자리 바코드 : 2권 9788949162041  
3권 9788949162058

2. 도서명 : 장군이네 떡집, 소원 떡집

3. 인증 유형 : 공급자적합성확인

4. KC 인증번호 : 따로 없음

5. 제품명 : 각양장

6. 제조자명 : ㈜비룡소

7. 제조년월 : 2020. 4. 29

8. 제조국 : 대한민국

9. 사용연령 :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

10. 주의 사항 : 종이에 손이 베이거나

모서리에 다치지 않게 주의하세요.